

<1차 임시대의원대회 &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선포대회> 2019년 교섭요구안 확정! 산별현장교섭 준비 위해 투쟁본부전환!



노동존중 일터 만들기 위해, 산별현장교섭 승리 위해.

어려운 여건이지만 간부대의원이 단결하면 이길 수 있다!

지난 13일 시청 상연재 세미나실에서 시작된 임시대의원대회는 노재옥 지부장의 대회사로 시작됐다. 노재옥 지부장은 “지난 해 고대의료원은 의료원 역사상 최대 진료 수익을 기록했다. 1조 클럽에 들어간 지 오래다. 그러나 간호등급이 2등급인 병원은 우리밖에 없을 것이다. 모든 직종에 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. 비정규직은 1100명으로 전국 사립대중 최고의 비율일 것 같다. 비정규직이 많은 병원, 인력이 모자른 병원이 고대다. 이 부분을 개선하고자 작년부터 올 해 초까지 노동부 근로감독을 통해서 일정부분 공짜노동과 관련된 부분들을 시정해 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. 그리고 소정 근로시간(209시간) 개선, 근로시간 특례합의 무효는 노사 대화로 풀지 못한다는 판단을 했다.

올 해 임금교섭 뿐이지만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. 하지만 노동조합 중심으로 간부대의원 조합원이 단결되게 싸워서 교섭을 승리로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.” 고 말했다.

1/4분기 각종회의 및 회계감사 보고 진행 및 투쟁본부 전환,

조정신청 시기위임 등 산별현장교섭 준비를 위한 안전 논의.

우리지부는 정기대의원대회 후 처음 치러지는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4월부터 6월까지의 활동보고를 진행했다. ▲회계보고는 박상필 회계감사가 진행했으며, ▲1/4분기 노사협의회 ▲소정근로시간 개선 ▲52시간 특례합의 무효소송 ▲속초의료원 산불 피해 후원 등에 대해서는 노재옥 지부장이 보고했다.

이어 안전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. 최근 한 달간 진행한 부서 요구안 간담회를 통해 마련된 요구안들은 논의한 뒤 최종 확정하였고, 추가 요구안이 있을 시 결정권을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했다. 이 밖에도 ▲산별현장교섭 투쟁계획 확정 ▲조정신청 시기위임 등에 대해 논의한 뒤 이견 없이 승인되었다.

산별현장교섭 승리를 위해, 7만 조합원의 단결된 힘을 나누고자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선포대회에 참가했다.

한편, 우리지부는 같은 날 오후 1시 반부터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진행되는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참가했다. 이 자리에는 간부대의원 뿐만 아니라 근무 전후 참가한 조합원들을 포함 해 약 70여명이 모였다.

선포대회에서 니순자 위원장은 “생명을 살리는 병원에서 일하는



우리 노동자들도 안전하지 못한 상황이다,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을 때 환자도 안전할 수 있다”며 “공짜노동, 비정규직, 폭언폭행, 숙임인증 OUT, 안전, 의료법준수, 해고자 복직 O.K, 일터 혁명을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한다.”고 강조했다.

약 2시간가량 구름 한 점 없는 햇볕아래서 지부 소속 율동패들이 준비해온 댄스공연을 관람했으며, 사회자의 지시에 따라 구호도 외치고 함성도 외치며 결의를 다졌다. 오후 4시부터는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했으며 마무리 집회 후 해산했다.

보 고 사 항 및 논의안건 결과

보고 1. 활동보고(4월~6월)

보고 4. 소정근로시간(209시간) 및 근로시간 특례합의 무효소송 계약 보고

보고 2. 2019년 1/4분기 회계감사 보고

보고 5. 보건의료노조 속초의료원지부 산불피해 조합원 후원 모금 보고

보고 3. 2019년 1/4분기 노사협의회 보고

안건 1. 2019년 고대의료원지부 산별현장교섭 요구안 확정 및 추가요구안 확정 위임에 관한 건

▶ 요구안 중 직원 보수교육비 요구가 있었으나 올 해 임금교섭인 점을 감안하여 내년 임단협 요구안으로 정리하고 나머지 안건에 대해 이의 없이 확정하기로 함. 이후 추가 요구안이 나올 경우를 대비하여 집행부에 결정권을 위임하고 판단에 따라 요구안을 추가할 수 있도록 위임을 승인함.

안건 2. 2019년 고대의료원지부 산별현장교섭 투쟁계획 확정에 관한 건

▶ 6월 27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흐름과 투쟁계획을 잡아 교섭의 틀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이의 없이 안건 통과함.

안건 3. 2019년 고대의료원지부 투쟁본부 전환에 관한 건

▶ 산별현장교섭을 앞두고 집행부의 체계를 투쟁본부로 전환하고자 함. 이에 대한 이견 없었으며, 투쟁 본부 전환 이후부터는 조합비가 아닌 투쟁기금에서 활동비를 운영하게 됨.

안건 4. 2019년 고대의료원지부 산별현장교섭 조정신청 시기 위임에 관한 건

▶ 현장교섭이 노사간의 불일치로 결렬되거나 사측의 일방적인 교섭해태로 인한 어려움을 겪을 시 노동부 조정신청을 통하여 중재를 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판단 및 신청 시기를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함.

2019 노동이 존중받는 고대의료원 만들기!

산별현장교섭 6.27상견례 확정!

▲ 임금 인상 6%

▲ 상여금, 명절수당 등 각종 수당 인상 및 신설

▲ 노동존중 4OUT 2OK

▲ 법 개정 사항 이행

▲ 단협미이행 사항 이행(정·명퇴 사직자리 충원, 비정규직 정규직화)

1차 임시대의원대회서 부서 간담회를 통해 취합된 요구안이 확정됐다. 노동조합의 운영체제도 투쟁본부로 전환됐다. 이로써 2019년 교섭을 승리할 준비만이 남았다!

어느 해 보다도 눈부신 성과를 내은 2019년의 고대의료원은 6천여 직원의, 3천여 조합원의 피, 땀, 눈물로 만든 것이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원은 오히려 더 귀를 막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.

6월 27일 노사 상견례를 시작으로 2018년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버텨왔던 우리가 당당하게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자. 전 조합원이 단결된 힘으로 뭉칠 때만이 의료원에서 지켜지지 않았던 노동존중, 열악한 노동환경, 노동착취와 탄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다.